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참고자료

(배포) 2017. 11. 20(월)

즉시 사용

담당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팀장 박영철, 사무관 이재광
(044-200-2726, 2709)

이낙연 국무총리, 포항 지진피해 성금 전달

- KBS 특별 생방송, '포항 지진피해, 우리가 함께 합니다' 출연 -

□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20일(월) 오후, KBS 본관 시청자광장에서 진행된 포항 지진피해 성금 모금방송에 출연해서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 포항 지진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이번 특별성금모금캠페인, '포항 지진피해, 우리가 함께 합니다'는 11월 20일(월) 15시부터 19시까지 진행되며, KBS 1TV에서 생방송으로 방영*됩니다.

* 성금 모금은 ARS와 은행 입금 방식으로 12월 15일(금) 까지 진행

□ 한편, 이 총리는 11월 15일(수) 오후, 포항 지진 발생 직후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에 긴급지시를 내리고,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철저한 안전 대책을 당부했으며,

○ 11월 16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포항지진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오후에는 경북 포항시청 재난상황실과 지진피해지역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 아울러 11월 20일(월) 오전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포항지진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지진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붙임) 국무총리 생방송 인터뷰 전문

Q. 지진 소식을 처음 접하셨을 때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현장에 뛰어가고 싶었는데, 포항시민들이나 이재민들 뵙기 전에 미리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다음날 아침에야 가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이재민이 발생해서 무려 1,400여명의 이재민들이 실내체육관 마루에서 새우잠을 주무시고, 가구 간에 칸막이도 안 된 상태에서 무척 불편하고 불안한 시간을 보내셨는데, 이제 인근에 있는 학교 체육관 등으로 분산되고 세대별로 칸막이가 돼서 약간은 나아졌을 겁니다. 정부가 지진 발생 다음 날, 40억 원의 재난 안전특별교부세를 바로 보내 드렸고, 또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거처 지원이라든가, 오늘은 대통령께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초적인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참으로 고맙게도 많은 자원봉사자들께서 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포항에 모여서 이재민들을 돕고 계시고 많은 국민들께서 성금을 내주고 계셔서 우리 포항시민들께서 외롭지 않다는 걸 알아주시고, 국민들이 포항시민 여러분을 현장에 가서 뵙지 못 하더라도 마음으로라도 여러분과 함께 있다, 이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에 재난 안전문자가 좀 일찍 도착을 했고, 수능이 미뤄지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한 부분이 있는데, 정부 측 입장에서 국민들께 힘이 되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현재는 제일 굵은 문제가 이재민들의 임시거처와 수능의 완벽한 대비 이 두 가지입니다. 이재민들의 임시거처는 특별히

별도의 집을 짓지 않고도 LH공사 가진 집만으로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입주를 희망하시는 이재민들이 404세대 쯤으로 조사되고 있는데요, LH공사가 가진 가용한 집들이 이리저리 합치면 570세대 쯤 되니까, 시간의 선후관계는 있을지 몰라도 해결이 될 것입니다. 포항시가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입주민들을 선별하고 계시니, 그것은 해결될 것 같은데 수능은 여진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큰 관건입니다. 본진이 예측할 수 없었던 것처럼 여진도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어느 경우에도 대비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고 또 최악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큰 혼란 없이 수능도 치러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으로 포항시민 여러분과 수험생 여러분께 감사드려야 할 것은, 이런 큰 불행에도 불구하고 질서를 지켜주시고 협조해주시고 서로를 배려하시고 그래서 정부로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수험생 여러분을 포함한 포항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